

滄洲 鄭 詳 先生의 滄洲亭

○ 1609년(光海元年 乙酉) 6월4일 壽 77歲 逝去하시니 뒤에 睡隱 姜 沆, 谿谷 張 維, 芷川 金 咸 등 많은 賢士들이 挽詞와 詩로 애도하였으며 鐵原府使 教旨는 공이 별세하시고 상여가 뜰 때에 도착했다고 傳해진다.

配는 淑夫人 固城李氏 習讀 愨의 女요 監司 節의 玄孫이고 슬하에 4男 1女를 두셨는데 長男 通德郎公 如龍, 次男 慶源都護府使 護錦公 如麟, 3男 通德郎公 如鳳, 4男 從仕郎公 如龜, 女는 坡州人 廉公達에 出家하다.

○ 墓地는 羅州市 多侍面 雲峰里 白龍山 案山 已坐(雙坐)이다

○ 1799년(正祖 23年 己未)에 士林들이 羅州市 多侍面 永洞里 草洞(옛 莎洞) 寶山祠(음력 9.15.)을 建立하여 配享하였고 後에 老安面 永平里 雪齋書院(음력 9.25.)에도 配享되었다.

▣ 창주정 滄洲亭 재再 중건重建 개요概要와 기문記文

재(再) 중건(重建) 개요(概要)

창주공 11세손 정종회(鄭宗會) 창주정(滄洲亭)은 호조정랑(戶曹正郎)을 역임한 창주(滄洲) 정상(鄭詳, 1533~1609) 선생이 건립한 정자이다.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 후석(朽石) 마을에 위치하며, 건립 시기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추정된다.

창주 선생은 1574년(선조7)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였으니 영예로운 현달(顯達)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90년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謀反事件)에 연루된 오현(五賢)을 변무(辯誣)하는 소장(疏狀)을 올렸다가 파당(派黨)을 위한 일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선생은 이후 초개(草芥)와 같이 벼슬을 버리고 1591년 후석 마을(현재의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로 낙향하여 청빈(淸貧)한 삶을 살았다. 당시 이곳 사동(莎洞) 여울가에 정자를 짓고 당대의 석학(碩學)들과 경서(經書)를 강론하고 시문을 품평(品評)하는 한편 후학을 양성하여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창주정은 한 차례 중수(重修)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1953년 거듭 중건(重建)되었다. 전란 후 물자가 귀한 가운데 선생의 10세손 호석(湖石) 정연(鄭漣), 심석(心石) 정룡(鄭龍), 금암(錦庵) 정본(鄭本, 자(字) 육남(六南)) 등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였다. 당시 운반 장비가 상황에서 금암께서 다시면 내의 우마(牛馬) 달구지를 총동원하여 정자의 석물 기둥과 목재 등을 운반, 건립하셨다고 전해진다. 정자의 규모는 단층의 팔작지붕 평기와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9기의 현판이 있다. 기단 기둥은 화강암을, 기타 목재(木材)는 규목(槻木)을 사용하였다. 다른 정자와 비교할 때 건축학적 특징을 많이 지닌 정자로 일컬어진다.

정자의 주변을 살펴보면 정면에는 영산강(榮山江)이 띠처럼 유유히 흐른다. 강 너머로 보이는 월출산(月出山)은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어 빼어나니 호남(湖南)의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리고, 동북쪽으로는 나주의 진산(鎭山) 금성산(錦城山)으로부터 나온 산세가 병풍을 펼쳐 놓은 듯 길게 뻗어 장관을 이룬다. 예전에는 영산강이 회진(會津) 영모정 앞을 지나 창주정 앞의 서창(西倉, 지금의 학동(鶴洞)) 앞으로 흘러 소요정과 장춘정을 거쳐 석관정 앞으로 빠져나갔다. 현재는 영산강 직강 공사로 인하여 정자 앞이 농경지로 변하였지만 정자에 올라 바라보면 넓은 들판과 영산강, 그리고 월출산과 주변의 산세가 어우러지니, 그 절경에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1) 오현(五賢) : 동암(東巖) 이발(李潑), 남계(南溪) 이길(李洁), 청계(淸溪) 유몽정(柳夢井), 정곡(鼎谷) 조대중(曹大中),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을 가리킴.

滄洲亭秋思 창 주 정 추 사

窓外秋風起
창 외 추 풍 기

寒蛩咽耳邊
한 공 인 이 변

有懷人不識
유 회 인 알 식

無計到家眠
무 계 도 가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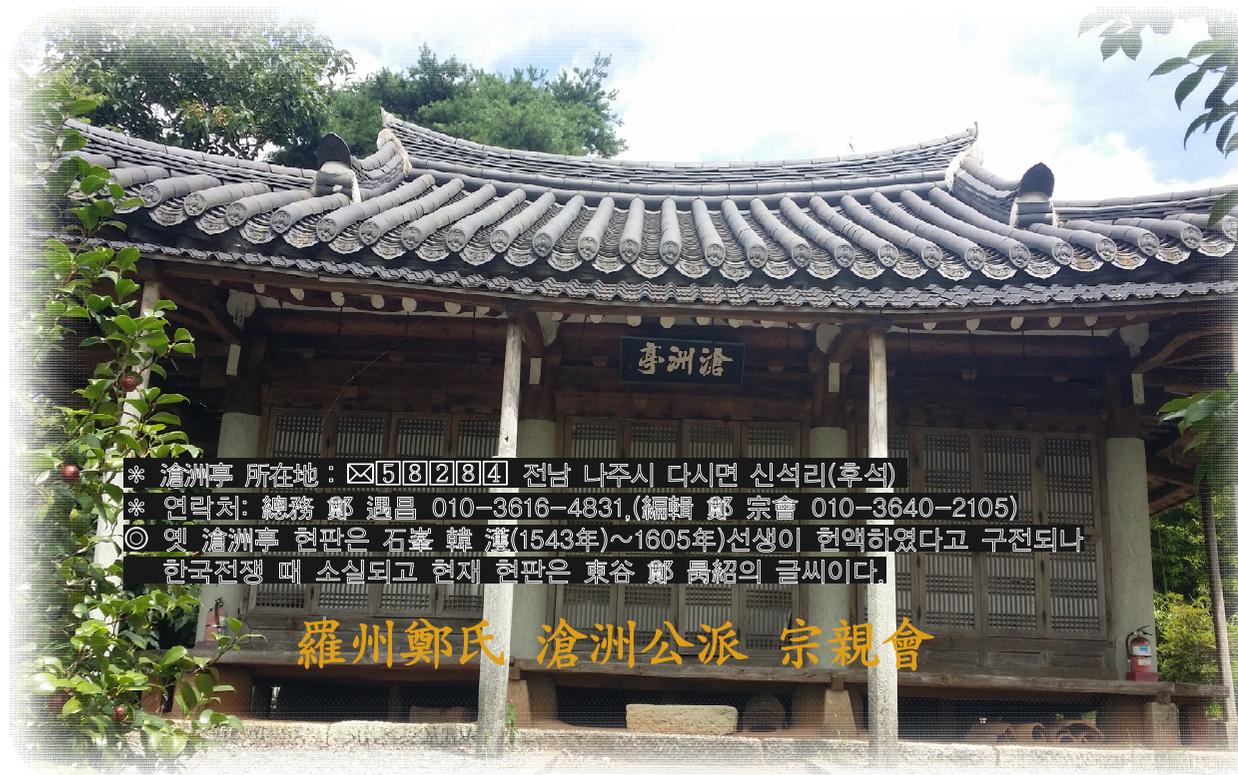
창주정의 가을 생각

창 밖에 갈바람 불고

쓸쓸한 키득라미 느리 깃가에 애처롭네.

이 마음을 사람들 알지 못하니

집으로 돌아가 잠들 길 없구나.



* 滄洲亭 所在地 : ☎58284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후석)
 * 연락처: 總務 鄭 遇昌 010-3616-4831, (編輯 鄭 宗會 010-3640-2105)
 © 옛 滄洲亭 현판은 石峯 韓 漣(1543年)~1605年)선생이 현액하였다고 구전되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현재 현판은 東谷 鄭 昞紹의 글씨이다.

羅州鄭氏 滄洲公派 宗親會

창주정상선생년보 및 약사
滄洲鄭詳先生年譜 및 略史

○ 1533년(中宗 28年 癸巳) 高麗 文靖公 雪齋 鄭可臣 先生의 9世孫이요 朝鮮 世宗 世祖 時代 景武公 鄭軾의 4世孫이며 司膽寺主簿 思禮堂公 鄭念祖의 長子 默齋公 訥, 次子 逸軒公 諶에 이어 셋째로 誕生하시니 公의 諱는 詳이요, 字는 仲愼, 號는 滄洲이다.

○ 성품이 엄숙하고 의지가 굳어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져 이름이 翰院(藝文館)에 기재되고 當代 碩學 儒學者 漢陰 李德馨, 白沙 李恒福(鰲城府院君)들과 交遊가 있었으며 睡隱 姜沆, 谿谷 張維와도 道義의 交를 맺었다.

○ 1574년(宣祖 7年 甲戌) 別試에 文科 壯元 及第, 殿中侍御史에 임명.

○ 1574년(宣祖 7年 甲戌) 12월 12일 宣務郎 行 成均館典籍 兼 春秋館記注官

○ 1575년(宣祖 8年 乙亥) 1월 宣務郎 行 司憲府監察

○ 1575년(宣祖 8年 乙亥) 8월 丹城縣監에 除授되었는데 모두 시작하고 부임하지 않으셨다.

○ 1575년(宣祖 8年 乙亥) 9월 除 宣務郎 奉常寺主簿로 임명되고

○ 1575년(宣祖 8年 乙亥) 10월 外職으로 나아가 宣務郎 守 南平縣監을 맡으셨다.

○ 1577년(宣祖 10年 丁丑) 守 司憲府監察에 임명.

○ 1578년(宣祖 11年 戊寅) 5월 宣務郎 戶曹佐郎

○ 1578년(宣祖 11年 戊寅) 8월 5일 宣務郎 守 成均館典籍 兼 東學教授

○ 1579년(宣祖 12年 己卯) 10월 戶曹正郎과 弘文館典籍 兼 東學教授와 養賢主簿에 임명되고, 外職으로 나아가 茂朱都護府使를 맡으셨다.

○ 1579년(宣祖 12年 己卯) 11월 遷 承訓郎 茂朱府使(縣監)

○ 1583년(宣祖 16年 癸未) 2월 12일 承訓郎 行 刑曹正郎

○ 1583년(宣祖 16年 癸未) 思禮堂의 喪事.

○ 1585년(宣祖 18年 乙酉) 1월 通善郎 行 舒川郡守

○ 1585년(宣祖 18年 乙酉) 9월 奉直郎 守 舒川郡守

○ 1586년(宣祖 19年 丙戌) 萬歷 14年 正月 30일 陞 通善郎 守 舒川郡守 임명. 舒川郡守 때는 그 德을 암벽에 새기고 오래도록 칭송했다고 전해진다.

○ 1587년(宣祖 20年 丁亥) 11월 通善郎 行 昌平縣令

○ 1590년(宣祖 23年 庚寅) 伸辨五臣冤疏 上疏文 올려 辨誣

- 鄭汝立 謀反事件에 連累된 五臣의 冤恨을 풀어주기 위해서 滄洲公께서 올린 上疏文

* 己丑士禍 때 습진 南人 五臣 : 東巖 李潑(1544~1589), 南溪 李洁(1547~1589),

清溪 柳夢井(1551~1589), 鼎谷 曹大中(1549~1589), 困齋 鄭介淸(1529~1590)

○ 1590년(宣祖 23年 庚寅) 4월 宣略將軍 行 忠佐衛副司勇(벼슬에 뜻이 없어 亂國에 헌신하는 직을 받은 것 같다.)

○ 1590년(宣祖 23年 庚寅) 6월 7일 振勇校威 行 忠武衛副司勇

○ 1591년(宣祖 24年 辛卯) 萬歷 19年 3月20日 陞 奉正大夫 行 公州判官(提督屬校官) 兼 教授

○ 己丑諸賢을 辨誣했다가 權力을 잡은 무리들에게 미움을 사서 逼迫을 받아 顯達할 수 없었으며 벼슬의 뜻을 草芥같이 버리시고 江湖로 물러나 낙향하였다. 그러나 다시 羅州 提督에 임명되었지만 관직을 그만두고 朽石(現 羅州市 多侍面 新石里)에서 淸貧한 삶을 살면서 滄洲亭을 짓고 당시 莎洞 七賢과 眞率會를 만들어 經書를 토론하고 後學들을 가르치니 당시의 名流들이 그 門下에서 많이 나왔다.

(註: 寶山祠 八文官/ 滄洲 鄭詳과 莎洞 七賢인 竹潭 李惟謹, 野憂 張以吉, 寒泉 柳澍, 三洲 崔喜說, 錦崖 李彦詳, 南湖 柳澍, 莎村 崔四勿을 말하고 八賢祠라고도 했다.)

○ 1592년(宣祖 25年 壬辰) 萬歷 20年 3월25일 奉正大夫 行 刑曹正郎 春秋館 記注官 다시 通政으로 조정에 들어와 刑曹正郎이 되었다.

○ 1592년(宣祖 25年 壬辰) 公은 60歲에 官職에서 물러난 후 壬辰倭亂이 발발하자 左水使 李忠武公 閑山陣으로 달려가 鹿島萬戶 鄭運과 金甲萬戶 宋希立과 회동하여 왜적을 토벌하고 강도를 회복할 것을 맹서하고 方略을 돕고 計策을 논하여 敵軍을 曳橋에서 大破하니 李忠武公이 기뻐하며 말씀하기를 “오늘의 승리는 鄭公의 힘이다.” 라고 하었다고 한다.

○ 閑山島 勝捷에 一助하며 計策을 論할 때 公께서 “敵은 強하고 我軍은 弱勢이었기에 李忠武公에 이르기를 湖南은 地理的 位置로 보아 國家의 根本이며 用兵의 要害地이니 먼저 이곳을 지켜야 할 것이요.” 하니 李忠武公도 수긍하였고 오늘날 우리 湖南人들에게는 矜持와 自負心을 심어준 “若無湖南 是無國家” 라는 말의 시초이다.(註: 滄洲公께서는 李忠武公보다 12년 年上이다.)

○ 閑山陣에서 晉州로 향하여 崔兵使 慶會와 橫湖南 相援의 戰略을 도모했고 南原에 이르러 梁大樸과 함께 檄文을 띄워 義兵을 모으다가 中途에 病患으로 돌아와 부득이 公을 대신해 次子 如麟을 軍糧米와 함께 李忠武公 陣으로 출전시켜 돕게 하여 公의 祖國守護의 忠成心을 널리 宣揚한 精神을 알 수 있다.

○ 또 健齋 金千鎰, 齋峰 高敬命 의병장과도 함께 圖謀하여 壬亂 克復에 獻身 하셨으며 朋黨의 挽留로 官職을 그만 두었고 선생과 李忠武公의 同義實錄과 후일 李忠武公이 전사하자 靛詞로 弔問을 하였으며 倡義使 健齋 金千鎰의 祠宇 建립시 羅州 旌烈祠에 奉安文 등을 남기셨다.